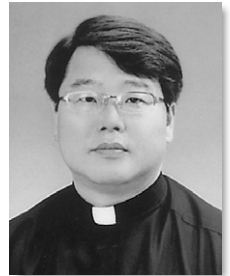


주일의말씀

“그리스도의 왕직은 이웃에 대한 봉사의 삶이다”

남종우 그레고리오 신부
들꽃마을 원장



연중시기 중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오늘은 교회달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중 특히 왕직(王職)에 대해 생각합니다. 왕직(봉사), 사제직(성화), 예언직(복음선포)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고, 이 세 가지 직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화되고 말씀을 온 세상에 알리며 말씀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세상의 권좌에 오른 사람들은 흔히 왕이라면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더욱 비참한 구렁텅이로 내몰기도 하며, 자기 생각의 범주에 있지 않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가차 없이 내치기도 합니다.

세상의 왕직과 그리스도의 왕직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상황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왕직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에 어떠한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을 살피면서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봉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왕직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웃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특별하게

살피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희생과 봉사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려고 애쓰는 우리는 이웃을 위해 얼마나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시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살피는 봉사보다 자기 식대로 이웃에게 접근하는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더욱 곤란한 처지로 만드는 경우를 접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봉사받기보다 봉사하러 오셨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이웃들을 하느님 나라로 잘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 받은 봉사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는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왕직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겸손을 지닐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던 예수님의 겸손, 인간의 손에 당신 자신을 내어 맡기고 십자가 상에서 완전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겸손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때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말씀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루카 23,42

2사무 5,1-3 콜로 1,12-20 루카 23,35L-43

8. 주님의 어머니, 우리 교구의 어머니 – 성모당 축성

문화홍보실

대 구대교구의 제 1 주보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루르드의 성모님이십니다. 교구가 설정되기 이전에 이미 대구본당의 주보이셨고, 초대 교구장 드망즈 주교님께서 부임하시면서 교구의 주보로 모셨던 것입니다. 교구청 안에 세워진 성모당 위에는 흰 색으로 “1911 EX VOTO IMMACULATAE CONCEPTIONI 1918”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데, 이 글씨는 드망즈 주교님께서 손수 새기신 것입니다. 그 말은 “1911년에 원죄 없으신 잉태께 드린 허원에 따라 1918년에 지어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드망즈 주교님의 허원에 따라 성모당을 지은 사실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주교님께서 허원의 내용을 도중에 바꾸신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 허원대로라면, 신학교와 주교관, 주교좌성당,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나서 성모당을 지어야 하나만, 실제로는 주교좌성당 증축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성모당을 먼저 지었던 것입니다.

주교님께서 허원의 내용을 바꾸시게 된 것은 주교님을 도와 교구 일을 하던 소세 신부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급성 늑막염이었는데, 열이 39도를 넘어서서 의식을 잃는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드망즈 주교님은 성모님께 바친 본

래의 허원을 바꾸어 이렇게 청했습니다 – 루르드의 성모님께서 소세 신부를 구해주신다면, 주교좌성당 확장 공사가 끝나기 전에 성모당을 먼저 지어 바치겠노라고. 그 정도로 진행된 늑막염을 고칠 만한 의술이 당시 대구에는 없었기 때문에, 소세 신부의 목숨은 오직 하느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교님과 신부 수녀들, 교우들, 심지어는 어린이들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밤새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던 소세 신부의 열이 갑자기 떨어진 것은 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세 신부의 병이 낫자마자, 역시 기적적으로 주교좌성당 증축에 필요한 돈이 마련됩니다. 성모님께서 전구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한 드망즈 주교님은 약속대로 주교좌성당 공사가 될 되었는데도 성모당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모당은 그저 경치 좋은 곳에 세워진 예쁜 건물이 아닙니다. 성모당은 교구의 주보이신 루르드의 성모님께서 이 교구를 몸소 돌보시고, 당신 자식들인 우리 교구 신부들과 수도자들, 신자들을 끔찍이 아끼신다는 것을 증언하려고 세운 사랑의 증표입니다. 성모님께서 그렇게 품에 안아 기르신 이 교구가 이제 100살이 되었습니다. 남산동 언덕에서 우리를 굽어보고 계시는 어머니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참생명의 내비게이션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미사

그리스도왕 대축일 연중 제34주일

입당성가

73 만민의 왕 그리스도

화답송

◎ 기뻐하며 주님의 집에 가세.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5 영원하신 성부

영성체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파견성가

75 주 그리스도 우리 왕

영성의향기

::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역사상 위대했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에 알리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 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삶의 목적은 언제나 열정을 동반합니다. 만약 그 목적이 사라지면 열정도 식어 버리게 되지요. 또한 이런 삶의 목적에 대한 인식은 영원에 대해 준비하게 합니다. 하느님은 마지막 날에 당신 아드님 예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당신이 주신 재능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곳과 거기서 차지하게 될 것, 그리고 그리로 가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가기 위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초점이 이 목표에 맞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되고, 참된 열정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재능과 재물과 수명이 모두 이 목표에 도움이 되라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글 - 깊은생각

아 멘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쓰는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똑같이 쓰이며, 사람이 사용하는 말마디 중에서 온 세상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단어입니다. 묵시록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멘이신 분”이라 부릅니다. 히브리어 “아멘”에서 나온 이 단어는 “믿는다,” 또는 “믿음직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인가 약속하실 때 사람은 그 말씀에 틀림이 없음을 믿는다는 뜻으로 “아멘”이라 응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도 역시 “아멘”입니다. 신앙인의 삶 안에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맨 마지막 말마디도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도 “아멘”으로 하루를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께 바치는 “아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 율게온 글입니다 -

- 행사 -

성음악 발표회

- 일시: 11.22(월) 19:30, 월성성당
-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 성소 / 피정 -

2011 교구설정 100주년기념 동계성소피정

- 대상: 중3~고2(내년 기준)
 - 일시: 2011.1.4.(화)~7(금) 3박4일
 - 장소: 제주도 성지 도보순례
 - 신청: 12.16(목)까지, 선착순 70명
 - 참가비: 33만원 (1인10만원 성소담당 지원)
 - 문의: 250-3071 / 010-6776-3071, 본당사무실
- 'LD 앓음' 기도모임**
- 일시: 매주 월 19:00~21:00
 - 장소: 예수성심시녀회(지하철현충로2번출구)
 - 대상: 미혼여성, 준비: 성경책
 - 문의: 010-9056-9005 / 010-2649-2045

오순절평화의 마을 후원회 미사

- 일시: 11.22(월) 11:00
- 장소: 고산성당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안수
- 문의: 051)782-0765

바느의 성모 기도회 15주년 추계 대피정

- 일시: 11.25(목) 09:00~17:00, 삼덕성당
- 장소: 이범주(바오로) 신부
- 문의: 삼덕성당 임마쿨라파의 집 427-7543

대림 특강 (하루 피정)

- 제목: 성숙한 신앙생활
- 일시: 11.29(월) 9:30~16:00, 대안성당
- 강사: 김길수(사도요한)교수
- 미사: 최홍길(레오)신부
- 문의: 017-501-9713

대림절 선교 피정

- 일시: 12.6(월) 10:30~15:30, 계산문화관 1층
- 대상: 선교대학 전수교생 및 동참하실 분
- 신청: 선착순 100명(무료)
- 지도: 이정효, 손무진, 이관석 신부
- 문의: 781-6100 / 010-3066-5971

- 모집 / 교육 -

제16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 동계 청소년 필리핀 영어연수
- 대상: 초4~중3 (선착순: 35명)
- 기간: 2011.1.2(일)~2.12(수) 6주, 405만원
- 문의: 656-6655(ARS4)

※9회 성인 해외봉사&어학연수모집중

통합예술치료사자격증과정모집

- 일시: 상시모집
- 푸른평화예술치료겨울방학캠프
- 일시: 12.27(월)~30(목) 3박4일
- 주관: 푸른평화예술치료상담연구소
- 문의: 794-6022 / 010-3513-2225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주영어마을

초·중학생 영어캠프 선착순 모집

- 캠프기간: 2011.1.3(월)~29(토)
- 접수기간: 11.22(월)~12.3(금)
- 접수: www.gev.ac.kr
- 문의: 054)777-8000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자문

- 장소: 계산성당 문화관 3층, 지도: 이관석 신부
- 문의: 781-6100 / 010-3066-5971

※개인 혹은 단체 1시간(한주일 전 미리 신청)

대구가톨릭노동청년회(JOC)회원모집

- 월미사: 매월 첫째주 수 19:30
- 장소: 가톨릭 근로자 회관
- 대상: 20~30대 청년 누구나
- 문의: 석헌진이나시오 010-8571-8526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 IVY리그 펜실베이니아 대학 제휴
- 유학시 학점인정 1년내 석사학위
- 자녀유학시경비지원, 무료어학연수기회
- 문의: 526-0111(http://tesol.cu.ac.kr)

가톨릭문화관 교육생모집(746-6211)

- 어린이강좌: 미술교실, POP, 바이올린, 플루트
- 전문과정: 청연비누 & 천연화장품만들기, POP
- 성인강좌: 플루트, 바이올린, POP, 요가

통신으로배우는신학과정-신입생모집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신학교육부

- 대상: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
- 내용: 신·구약성경 및 신학일반
- 원서접수: 11.8(월)~2011.2.11(금)
- 문의: 02)745-8339(ci.catholic.ac.kr)

제 37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모집

- 주관: 마신부님-아일랜드골롬반회
- 초·중·고: 2011.1.8(토)~30(일), 3주
- ※ 정규학교 수업 및 홈스테이 이용
- 대·일반: 2011.1.3(월)~2.13(일), 6주또는 장기
- 문의: 그린피스 E&T 02)3446-4253

해외 파견선교사를 위한 교육

- 16차: 2011.1.3(월)~1.28(금)
- 17차: 2011.2.7(월)~3.7(월)
- 대상: 해외로 파견되는 선교사, 교포사목자
- 문의: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02)953-0613

하상공부방 교사모집(성정하상성당)

-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 문의: 공부방 762-0920 / 010-5074-3891

백합어린이집 주방조리사 구함

- 자격: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문의: 256-6862 / 010-9263-6933

- 안 내 -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방정희(비트즈), 김정대(야고브), 박상대(야오스)

군중후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 군위문품을 보낼 예정이오니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 11.28(일), 접수: 본당사무실

• 대상: 신자자녀 현역사병(의경,전경포함)

※훈련병(교육병포함), 하사관, 장교제외

국내입양전문기관(해성보육원)

입양상담 및 미혼모 상담

샬트르 성모으로 수녀회 운영

• 문의: 032) 875-3240 / 874-3240

www.hschild.or.kr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구미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11월 22일(월) 오전11시	도량성당	군중후원회 미사	11월 22일(월) 오전11시	계산주교좌성당
4대리구 포항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2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3일(화) 오후2시	성모당

3대 64년 전통
다이아몬드 예물전문

미성당 귀족속

보석강경 무로시베스 실사, 심름 다이아몬드
커를링 행사 (나사강화를 받고오세요)

마스크 석회화 공인 국제보석강경사 박제현(비오)

629-9090, 011-541-5415

완산
순천
도로

구정북부
(현)수원

소방서
완산
내 거

미성당

카리타스 요양센터

Caritas LONG TERM CARE CENTER

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

1577-9913 / 636-5567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요양보호사교육원

053)255-7222 교구청(성모)내 교육원 가동중

연세소아발달연구소

(아동, 청소년, 성인, 가족치료센터)

복합주 치료비 지급 (바우처 제도)

매월1인당 128,000~220,000원 차등 지원

*심리,놀이,미술,음악,언어,학습치료ADHD등
소장 조옥형(하네스) / 652-9000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 독 보 청 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253-7476

방 프란치스코 (교우님 우대 할인)

중앙네거리 < 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오월의정원

하루수확1톤

세상에 하나뿐인 로맨틱드 하우스

결혼·돌·회갑·기업행사

중구 문화동 대구시센터(구, 밀리오예)

예약문의 664-7000

www.maygarden.kr

결혼정보회사

혼인을 앞둔 교우 자녀와

엘리트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주)코리아알트만

박복순(오틀리아)

• 지하철 2호선 범여역 4번 출구 •

TEL 743-4488 FAX 744-1594

노동부 지정

푸텍스 요리직업 전문학교

국비지원(계좌제)

취업반 창업반 자격증반

위치 >> 지하철 큰고개역 1번출구

원장 김 경 희 스페르나

Tel : 053)953-9800

●신속하고 간편한 대출

- 아파트담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 -

●높은 수익과 안전한 예금

유니온 저축은행

(www.kusb.co.kr)

TEL : 256-1122

대표이사 박판희(안토니오)